

농촌지역 「마을가기」 관행의 구조와 기능 (農村地域 「마을가기」 慣行의 構造와 機能)

牛 鎭 基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

- | | |
|--------------|-----------------|
| 1. 序論 | 4. 마을가기의 機能 |
| 2. 調査·研究의 方法 | 5. 마을가기의 構造와 變化 |
| 3. 마을가기의 樣態 | 6. 結 言 |

1. 서론(序論)

농촌에서 마을 사람들의 하루 일과(日課)는 대체로 아침에 일어나 식사하고 들에 나가 일을 하고 논둑에서 점심을 먹고 일하고 약간 쉬다가 저녁 먹고 ‘마실갔다’와서 잔다.

농촌 주민의 거의 모든 사회적(社會的) 활동(活動)은 가족(家族) 이외는 마을을 바탕으로 전개된다. 마을은 개인이 그 속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부모와 소꿉친구, 마을 어른들에게서 그 마을의 전승문화(傳承文化)를 배우고 마을의 한 성원(成員)이 되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익혀 가는 지역단위(地域單位)이다. 동시에 그들 자신들의 전통문화를 이어받고 새롭게 변화시키며¹⁾ 또 후손에게 전달하는 사회조직(社會組織)의 단위(單位)이다.

마을이란 말속에는 세 가지의 의미(意味)가 있다. 관원(官員)들이 모여서 나라의 일을 처리하는 관청(官廳)²⁾이란 뜻과 동리(洞里), 촌락(村落), 동네와 같은 지역사회(地域社會)의 가장 기초적인 집단(集團)³⁾, 이웃에 놀러 가는 일 등이 ‘마을’ 속에 들어 있는 뜻이다.

‘마을’은 지역에 따라 「마을」, 「모슬」(전남), 「말」, 「몰」(함경, 평북, 황해), 「마슬」(전남, 경기, 강원, 제주), 「마실」(경기, 강원, 충청, 전북, 경상)이라고 한다. 마을이라는 명칭은 마을 집회소(集會所) 내지는 그 접사(接舍)의 명칭(名稱)에서 유래되었다는 이병도(李丙燾)의 논의가 있다. 그에 의하면 이 집회 기관의 변천이요 후신(後身)인 정

1) The adaptation of folk of all the world and all time to their changing environment has given a common characteristic to world folklore(Clarke 1963:131)

2) 옛날 관청을 일컫는 말로 관원들이 모여서 나라의 사무를 처리하는 곳으로 옛말에 마을,마을,마을,마을이 있음.

3) 예로부터 우리 사회의 기본이 되는 自治單位로서, 여러 사람이 한동아리를 이루며 모여 사는 洞里, 村, 坊村, 村落, 村里, 동네와 같은 뜻으로 쓰임.

청(政廳)·관아(官衙)를 또한 「마을」이라고 하며, 관부(官府)와 관사(官舍)를 모두 「마을」이라 훈독(訓讀)하고 관아(官衙)에 가는 것이라든가, 관청(官廳)에 출근하는 것을 「마을에 간다」고 하는 것을 보아 알 수 있다고 했다. 속(俗)에 이웃집이나 동네외에 출입하는 것 역시 「마을간다」, 「마슬간다」고 하는데 이는 생각건대 옛날의 유일한 집회소요 또 출입 장소인 마을 집회소(마치 옛날 영국의 Folkmote와 같은 것)에 가서 놀고 의논하던 그런 습속에서 유래 전환된 것인 듯하다고 했다.(이병도(李丙燾) 1977:21~22, 1976:613~642)

‘마을’이란 명사가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가다, -오다, -다니다, -다녀오다 등의 동사(動詞)와 결합하여 사용될 때는 불일로 마을을 다니는 일, 또는 이웃에 놀러 다닌다는 뜻이 된다. 마을을 다니는 사람, 마을 온 사람을 마실꾼(마을꾼)이라고 한다. 길거리에서 마을 사람들이 만나서 인사를 나눌 때 보통 “어디 갔다 오니껴?”하고 인사하면 “마실갔다 오니더”하고 대답한다. “요새 그 할배 건강이 어떠떠껴?(어떠합니까)”하면 “마실 땡길 정도로 좋아졌더구만”하는 식으로 대답한다. 마실 다닌다는 것은 건강하다는 뜻뿐만 아니라 마을 사회(생활)에 참여한다는 뜻이 된다.

마을 간다, 마을 온다, 마을 다니다, 마을 다녀온다 등의 말은 불 일로 이웃집과 마을 내를 출입하거나 놀러 다니는 것 등의 뜻이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행(慣行)들을 ‘마을가기’⁴⁾라고 정의한다. ‘마을가기’관행에 대한 기존 용어는 말다니기⁵⁾, 마실다니기⁶⁾ 등이 있는데, ‘말다니기’는 마을의 준말인 ‘말’에 ‘다니기’를 결합하여 만든 용어로 서울·경기 지방에서 많이 사용된다. ‘마실다니기’는 ‘마실’이라는 방언(方言)과 ‘다니기’를 결합된 용어이다. ‘마실’은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되고 마실은 ‘다니다’라는 동사보다는 -간다, -가다, -오다 등의 동사와 더 많이 어울려 사용된다.

이러한 ‘마을가기’를 통해서 마을 성원(成員)들은 함께 모여 서로의 지식과 생각을 교환하여 현실을 파악하며, 공동의 관심사를 인식하고 이를 의논하며 해결하는 계기가 된다. 한마디로 ‘마을가기’란 마을 생활에서 부담 없이 개인과 개인, 집과 집 사이의 일상적(日常的)인 접촉(接觸)이며 교제관계(交際關係)이다. 마을가기는 마을 성원들 간에 마을 내의 정보(情報, 소식)를 전하는 통로(通路, channel)이며 협동생활(協同生活)의 바탕이 된다. 또한 이 마을가기는 마을 생활에서 밤낮, 농번기, 농한기와 관계없이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사회적(社會的) 관행(慣行)이며 일상적(日常的) 교섭이다. 마을가기를 통해 다른 성원과 전인적(全人的)인 접촉을 함으로써 마을 내의 갈등(葛藤)과 불화(不和)를 해소시켜, 마을의 일들이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한다. 또한 성원들의 심리적(心理的) 안정성(安定性)을 높여 주며 일탈적(逸脫的) 행위(行爲)를 규제하는 사회통제(社會統制)의 기능(機能)도 수행한다.

마을의 일상생활(日常生活)에서 마을가기의 대어(對語)로 ‘따돌림’ ‘돌림’이 있다. 패륜 행위(悖倫行爲)를 저질렀을 경우, ‘훼가출향’(毀家出鄉, 집을 헐고 마을에서 축출함)이라 하여 소임(所任)이 불기를 때리고 패륜아를 묶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모욕을 주고 마을에서 살지 못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마을의 공동이익이나, 마을 윤리에 반(反)하는 행태를 한 사람에게 ‘수화불통(水火不通)’이라 하여 일체의 모든 교환관계(交換

4) 이 용어를 쓴 학자로는 김택규(1980:338, 1985:395)가 있다.

5) 이 용어는 李光奎외(1979:37), 呂重哲(1985:112-113),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경북, 경남, 충남, 제주편)에 있다.

6)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주생활편)에서 金鴻植이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關係)를 단절하는 사회적 제재방법(制裁方法)이 있다.(박성용 1979:13)

따돌림은 일종의 사회적 제재(制裁)로서 그 집에 마을을 가지도 않고 마을을 오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다. 더불어 사는 마을 생활에서 마을을 가지도 오지도 못하는 따돌림의 상태가 된다. 이런 경우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고 더불어 사는 농촌의 마을 생활에서 당사자는 굉장한 불안과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 글에서는 마을 생활에서 ‘마을가기’ 관행이 가지는 의미(意味), 양태(樣態), 기능(機能)과 구조(構造) 등을 밝히고 나아가서 마을 생활의 근저(根底)를 이루고 있는 마을 내의 인간관계(人間關係), 근린관계(近隣關係)를 조명하고자 한다.

2. 조사(調査)·연구(研究)의 방법(方法)

지금까지 마을 사회에 대한 연구는 혈연관계(血緣關係)를 바탕으로 한 동성(同姓)마을 연구와 근린관계(近隣關係)로 이루어지는 명성(名姓)마을 연구, 마을 내의 공식·비공식 조직으로서 동회(洞會)와 대동회(大同會), 계(契), 보(洑), 품앗이와 두레, 부조관행(扶助慣行) 등 협동체계에 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에는 공동체(共同體)와 공동체의식(共同體意識)에 관한 연구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공동체 연구의 기본 민속소(民俗素)로 공동체 사업, 공동 관행, 신앙·의례, 규범과 제재 등을 다루고 있으나 실제 공동체연구에 중요한 민속소(民俗素)인 ‘마을가기’에 관한 논의는 전무하다.

마을가기에 대해 관심을 보인 학자(學者)로는 이광규(李光奎), 여중철(呂重哲), 김택규(金宅圭), 김홍식(金鴻植) 등이 있다.

이광규(李光奎)에 의하면, 마을에 어떠한 공식(公式)·비공식(非公式) 조직(組織)이 어떤 활동과 어떤 구조(構造)를 가지고 있는가를 논하면서 마을가기에 대하여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다. 「마을가기」를 「말다니기」로 칭하고 이것은 각종 정보(情報)의 교환(交換) -그것이 살림이나 농사에 대한 것이든지 정치적인 것이든지 간에- 을 행하는 수단이며, 왕래하는 단위는 친구나 친척이 되겠지만 꼭 일정하게 정해진 것이 아니며 평소 생활하는 중에 특히 가까운 사이가 여기에 속한다. 말다니기는 정치적(政治的) 오락적(娛樂的)인 기능(機能)을 갖기도 한다. 말다니기의 조사에 의하여 품앗이나 계와 같이 마을 내의 인간관계(人間關係)를 알 수 있는 좋은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고 했다(이광규 1979:37). 또한 그는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경북, 경남, 제주편)의 부락(部落)의 사회조사(社會調査) 항목(項目)에서 「말다니기」의 사례를 조사 보고하면서 약간의 분석을 가했으나 본격적인 논의는 하지 않았다.

여중철(呂重哲)도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충남편)에서 마을 내의 비공식 조직, 즉 말다니기, 품앗이, 계 등을 통해 마을 생활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여기서 충남 지역의 동성 마을과 각성 마을의 말다니기 사례에 대한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김택규(金宅圭)는 우리 나라 농촌(農村)에서 농업 생산을 위하여 영위(營爲)되는 협동의 여러 관행(慣行) 가운데 한 형태인 일상적(日常的) 교제관계(交際關係)로 「마을가기」를 부담 없는 집과 집의 거래로만 제시하고 있다.(1980:388, 1985:395)

김홍식(金鴻植)은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주생활(住生活)편, 1985)에서 「마실다니기」를 조사하고 있다. 여기서 그는 마을의 정주생활(定住生活)의 이해에 역점을 두고 건축적(建築的)인 측면뿐만 아니라 민속학적인 요소도 함께

강조하면서 가능하면 마을안 가족간 인간관계의 파악에 중점을 두고 있다. 공간의 기능 배분항(項), 공간의 이용항(項)에서 「마실다니기」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는데 자료 보고의 성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마을 생활에서 관행(慣行)되는 「마을가기」는 다른 연구와 부분(部分)으로 다루어진 예는 있으나, 그 자체를 집중적으로 분석된 연구는 아직 없다. 마을 생활의 비공식적(非公式的) 조직(組職)으로 마을 구조를 파악하는 민속소(民俗素)로 이해하는 접근(이광규, 여중철), 농업 생산을 위한 협동 체계의 한 형태로서의 접근(김택규), 그리고 정주생활(定住生活)을 파악하는 요소로서의 접근(김홍식)등이 마을가기에 대한 대체적인 연구 경향이였다.

마을가기는 외형적으로 정형화(定型化)되지 않고 상황(狀況)에 따라 그 유형(類型)을 달리한다. 또 이것은 비영속적(非永續的)이고 상황에 따라서 구성원 상호관계가 다르며 제도화(制度化)되지도 못했다. 아마 이 때문에 본격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 같다. 마을가기는 공식적 마을 생활 표면에는 나타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마을 생활을 움직이는 비공식(非公式) 집회(集會)이다.

더불어 사는 마을 생활은 개인적 차원에서, 또는 가족을 단위로 하여 사회적 관계가 중층적으로 유대를 이루고 있다. 마을 안에서 마을 사회는 품앗이, 두레의 작업 노동에서 협력하고 ‘마을’을 다니면서 서로의 고민과 문제를 깊이 해결하고 서로 위안하며 협동 의식을 강화한다. 전통적인 마을 사회는 지연(地緣), 혈연(血緣), 척연(戚然), 사연(社緣, solidarity)등으로 얽혀진 인간관계를 형성하며, ‘이웃사촌’으로 표현되는 고도의 공동체적(共同體的) 성격(性格)을 가진 대면사회(對面社會, face-to-face, Brandt 1971:28)이다. 인간과 인간, 가족과 가족 관계에서 「마을가기」라는 구체적인 사상(事象)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한국전통사회의 마을 생활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이 글에서 농촌의 마을생활과 인간관계를 파악하는 기본 요소로서 ‘마을가기’ 관행을 정하고, 어떤 사회적(社會的) 상황(狀況)과 맥락(脈絡) 속에서 마을가기가 이루어지고, 마을가기 모임 형성에 작용하는 주요한 문화적 요인은 무엇이며, 이와 관련된 미속으로는 무엇이 있는가, 이 마을가기가 마을 생활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며, 어떤 구조를 가지는가 등의 문제를 밝혀 보려고 한다.

- ① 마을가기는 언제 관행되는가?
- ② 마을가기는 어떤 장소에서 이루어지는가?
- ③ 마을을 가면 모이는 사람은 누구이며 이들의 상호관계는 어떤 것인가?
- ④ 마을 가서 무슨 일을 하는가?
- ⑤ 마을가기와 관련된 민속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와 같은 의문을 풀어 가면서 마을가기에서 관찰되는 행위의 총체(總體)와 구조적인 관계성 속에 숨어 드러나지 않은 경험적 실제(經驗的 實際, Empirical Reality)를 밝혀냄으로 마을가기가 마을 생활에서 어떤 유형(類型)과 기능(機能)을 가지며 그 구조원리(構造原理)를 밝혀 보려는 것이 이 글의 취지(趣旨)이며 목적(目的)이다.

1989년 경북 안동군 임하면 고곡동(새터)을 현지조사지로 하여 마을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全數調查), 주요제보자(主要提報者)들과 면접(面接, Key-informant interview), 마을가기의 참여관찰(參與觀察, Participant observation)등을 통해서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내용이다. 또한 성원들 간의 우호적 관계와 갈등적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 Sociometry 방법(方法), 연강분석(連綱分析, Network analysis), 교환이론(交換理論)등을 사용했다. Sociometry 방법은 사회학(社會學)과 심리학(心理學)에서 널리 사용되는 방법론으로 일정한 집단 내의 개인간의 화친(和親, attraction)과 반발(反撥, repulsion)을 측정하고 그 집단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다. 연강(連綱)의 개념은 집단이나 어떤 분석 단위의 상호관계에 관한 분석 도구로서 사용된다. 교환이론(交換理論)은 마을가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도구로서 마을 안의 교환 체계가 이해되면 마을 안의 성원 상호간의 물질적 교환뿐만 아니라 사회적 교환까지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3. 마을가기의 양태(樣態)

마을가기의 모임은 외형적으로 정형화(定型化)되어 있지 않았다. 상황(狀況)에 따라 참여하는 성원이 달라진다.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시간이 나면 습관적으로 서로 마을을 다닌다. 하루에도 같은 마을 안에는 여러 개의 마을가기 모임이 형성된다. 이 마을가기 모임에 작용하는 주요 사회문화적(社會文化的) 인자(因子)로서 혈연관계(血緣關係), 연령(年齡), 성(性), 주거위치(住居位置), 생활주기(生活週期) 등을 설정하고⁷⁾ 이에 따른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겠다.

가. 혈연관계(血緣關係)와 마을가기

마을 사회의 인간관계(人間關係)는 혈연적(血緣的) 인간관계와 비혈연적(非血緣的) 인간관계로 대별할 수 있다. 그 중에서 다시 수직적(垂直的) 관계와 수평적(水平的) 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고, 수직적 수평 관계이면서 “어려운 관계(회피관계)”와 “만만한 관계(농담 관계)”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김택규 1986:637). 사회 조직의 2대 원리는 친족(親族, kin)중심과 친구(kith)중심으로 대별된다(Fox:1967).

조사지 새터에는 예천 임씨와 울진 임씨들이 각기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화수회 조직을 가지고 있고 그 외의 각성들은 나름대로의 이웃 관계를 바탕으로 각종 ‘전회(계)’모임을 형성하고 있다.

혈연관계에는 마을가기는 큰집-작은집, 친등(촌소), 향렬, 나이, 지리적 인접성, 친정·처가의 위치 등의 문제가 마을 다니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큰집-작은집의 관계는 부모-자식의 사이, 형-제의 사이로 마을 다니기가 가장 밀도 있게 관행된다. 마을가서 하는 이야기는 경조사 때는 협조(協助)와 부조(扶助)문제, 농사철의 협조, 조상일에 대한 논의 등 주로 집안의 주요한 일에 대해 협의한다.

“집안이 귀하면 삼종(三從, 8촌)까지, 손이 흔하면 6촌까지 친족이라고 생각한다”는 말이 있다. 같은 당내(堂內)에서는 촌수(寸數)가 마을 다니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그 이상의 친척에서는 친등(촌소)보다 지리적 접근성(接近性)이 오히려 더 큰 의미를 갖는다.

친척간에 향렬(行列) 하나가 나이 열살 접는다는 말처럼 일상생활에서 10살 연하의

7) 경제적 요인은 고려하지 않았다. 농촌에서 빈부의 차는 그리 크지 않다. 실제의 재산 규모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더라도 衣食住生活 및 文化的 향유는 거의 비슷하다. 집이 특히 클 뿐 입읍새나 먹음새는 대동소이하다. 웬만한 것은 자급자족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아이들의 놀이터나 배움터가 동일하다. 어른들의 일터가 비슷하다(임재해 1987:176).

항렬이 높은 친족에게는 존칭을 쓰지 않는다 혈연관계 내에서 마을을 자주 가는 집은 같은 항렬, 같은 나이끼리의 사람의 집이다. 여성의 경우 남편의 항렬과 나이에 준하며, 연줄혼으로 인한 혼전거주지(婚前居住地, 친정)가 같은 사람들끼리 마을을 자주 다닌다.

혈연관계에서의 마을가기는 ① 큰집-작은집 사이, ② 친등이 가깝고 나이와 항렬이 비슷한 사람끼리, ③ 친등이 멀어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친척집 사이에서 많이 관행된다8).

나. 연령(年齡)과 마을가기

사람들은 연령에 따라 상하관계(上下關係)를 형성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며 조직을 갖는다(한상복 외 1982:111). 마을가기로 이루어지는 모임은 연령집단(年齡集團)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 마을가기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연배(年輩, age-set)이다. 마을가기에서 나이가 큰 변수로 작용한다. 마을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질서원리의 하나가 장유(長幼)의 서(序)이다. 장유의 서는 특히 남성들 사이에서 자기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 전원을 연장자(손윗사람, 이것을 다시 형님빨, 아버지빨, 할아버지빨로 재분9), 동년배, 연소자(손아래 사람)등으로 구분하고, 또 제삼자들도 모든 마을 사람들의 연령(年齡) 서열(序列)을 알고 있다10).

같은 연배의 사람을 만나면 우선 상대방의 연령을 묻는다. 동갑이면 친근감을 표시하면서도 다시 생일을 묻고 그것도 같으면 태어난 시까지 물어서 어느 쪽이 형님이냐를 따진다. 만약 같은 또래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말씨나 여러 가지 행동거지에 조심해야 한다. 자기보다 나이가 아주 많은 사람과 동석할 경우에는 손아래 사람이 침묵을 지키며, 자신의 의사를 조심스럽게 말하고 연장자의 말에 귀를 기울여 모시지만 한편 될 수 있으면 답답한 곳을 피해서 같은 나이 또래와 마음놓고 모여 놀 수 있는 분위기를 찾는 경향이 있다(이동아인(伊藤亞人):1982:47). 즉 연령의 차가 크면 일종의 회피(回避,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동년배이거나 2~3살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때는 형식적인 분위기에서 해방되어 아주 자유스러워진다(미성직남(未成直男) 1985:47). 그래서 마을가기도 자연히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비슷한 나이의 친구끼리 습관적으로 이루어진다.

여성들 사이의 마을가기에서는 연령의 구분이 남자에 비하여 약하다. 여자들 사이에서는 남편의 연령에 준하여 고려되며, 마을 가는데 연령의 구분이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는다.

나이가 같은 사람을 “동갑(同甲)” “동갑내기”라 하여 특히 친한 사이가 되는 경우가 많다. 나이가 비슷하다는 것은 마을가기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조사지에는 각종 동갑계, 친목계가 있다. 대부분의 친목단체는 기존의 관계, 즉 ‘친한사이’의 인간관계를 바탕

8)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제주편 p37)에서 분석한 마을가기는 혈연관계에서 많이 관행된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마을가기의 대상은 친척집이 42, 이웃에 16, 친구집에 13이다.

9) 나이가 배가되면 아버지처럼 모시고 10년 위이면 형님으로 모시고 5년 위이면 조금은 공경을 더할 것이요(年長以倍 則父事之 十年以長 則兄事之 五年以長 亦稍加敬.<국역 栗谷集>1, 제9章 接人篇, 1976, 고전국역총서 22:441)

10) 누어인의 연령체계에서도 3가지 구분을 하고 있다. 모든 Neur 남성들은 연령체계(The age-set System)내에서 다른 남자와 관련되어 구조적으로 규정되며, 그들에 대한 자신의 지위는 연장자(Seniority), 또래(Equality), 연소자(Juniority) 가운데 하나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Prichard 1940:257).

으로 조직된다. 뜻맞는 사람끼리 친목집단을 조직한다. 마을가기도 이런 같은 계원끼리 활발하게 이루어진다.

다. 성(性, sex)과 마을가기

사회성원(社會成員)들은 성(性)에 따라 기능(機能)과 역할(役割)을 분담하며 각각 특유의 행동원리(行動原理)의 조직(組織)을 갖는다. 이것은 신체적 특성에 의한 역할분담 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준에 의한 사회, 경제, 정치, 종교 차원에서 역할분담을 한다(한상복 외 1982:111).

남녀 성에 따라 마을가기의 내용과 형태에 있어서 다르게 나타난다. 즉, 남자들이 마을가는 대상, 시간, 마을 가서 하는 일이 여자들이 마을 다니는 것과 다르다. 성(性)을 인식하기 시작하는 청소년기의 마을가기는 이성을 이해하고 성교육을 전승하는 비밀교실이기도 했던 것이다.

남자들은 지리적 원근에 관계없이 같은 연배들이 모이는 곳으로 주로 마을간다. “남자는 사랑(마을)에 나가야 한다”는 어느 제보자의 말에서 남자들은 마을사정이나 농산물 가격, 세상 돌아가는 일을 알기 위해서 마을 가는 것이 권장되었다. 마을 내의 가게는 “새터의 청와대”라고 할만큼 많은 정보와 마을의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다.

반면에 젊은 며느리들과 처녀들의 마을가기, 특히 밤마을 다니는 것은 흥이 되었다.

취학 전에는 남자, 여자 구별을 하지 않고 같은 놀이동무가 되지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까지는 남녀의 구분을 지어 논다. 그러다 중학교 고학년부터 혼전까지는 남녀의 구분은 있으나 자주 함께 모여 마을 다닌다.

성교육(性教育)이 개방적이지 못한 전통사회에서는 마을 다니면서 동성(同性)이나 이성(異性) 또래와 접촉한다. 동성끼리 밤마실 가서 성에 대한 지식과 호기심을 서로 이야기한다. 그러다가 간간이 이성들과 함께 어울려 마을 다니면서 이성에 대한 사춘기의 관심을 충족시킨다.

청소년들이 마을가기는 성교육의 비밀교실이었고, 어른들에게는 공동작업장이고 토론과 논의의 장(場)이 된다.

라. 주거위치(住居位置)와 마을가기

마을가기는 앞에서 거론된 혈연관계, 연령, 성 등 사회적 생물학적(生物學的) 주요요인(主要要因) 뿐만 아니라 지리적 상황(地理的 狀況, Geographic Environment)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즉, 골목길, 공동우물, 당나무, 빨래터, 가게 등의 공공장소나 물리적 거리(Physical distance)등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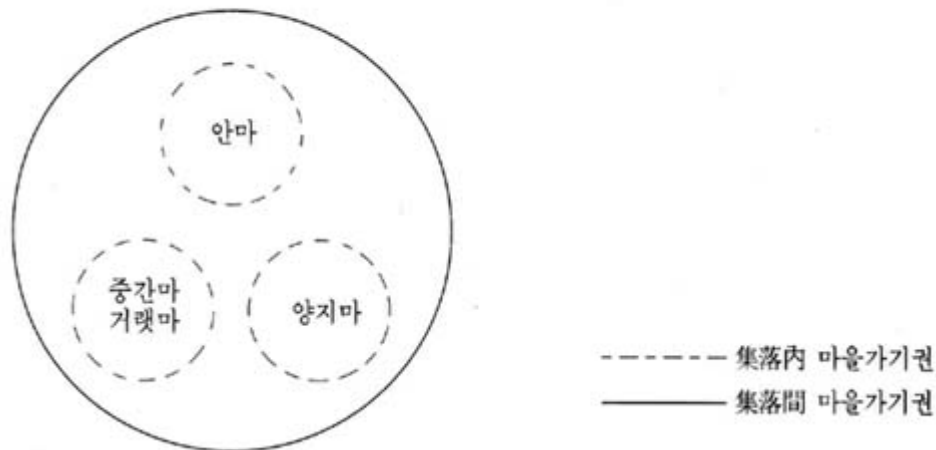
근린관계(近隣關係)는 특정 거주인이 도보로 1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이웃과 긴밀한 상호관계를 갖고 있는 정도로 규정한다(강대기 1982:129). 농촌의 정주형태(定住形態)상 마을 전체가 10분 이내의 거리에 살고 있다. 마을 전체가 근린관계를 이루고 있는 셈이다. 이웃집 하면 “집 이웃” 뿐만 아니라 “토지 이웃”까지도 포함되는 것이다. ‘이웃사촌’이라는 속언에서처럼 이웃끼리 마을 다니는 빈도는 크다.

조사지는 지형(地形)과 정주형태(定住形態, 집락(集落))에 따라서 안마, 중간마, 거렛마, 양지마로 나누어져 있다. 연구자는 같은 집락내(集落內)에서 마을 가는 것을 [집락

적(集落的) 마을가기권]이라고 설정하고, 한 집락(集落)의 범위를 넘어서 다른 집락의 이웃으로 마을가는 것을 [집락간(集落間) 마을가기권]이라 정해보았다. 그러면 조사지에는 3개의 [집락(集落)내 마을가기권]이 있고 그것을 기본단위로 하여 조사지 전체의 [마을가기]가 이루어진다(<표1> 참조). 남자들은 지리적 거리에 상관없이 비교적 전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을 간다. 그러나 여자들은 주로 집락내 마을가기권으로 한정된다.

마을가기의 중요한 통로(通路)는 길이다. 길¹¹⁾은 인간이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나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나 간에 길이 생기면 인간활동의 통로 구실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 집과 집을 잇고, 집과 거리, 집과 우물, 집과 논밭은 연결하는 골목길은 그물의 눈과 같아서 나와 나의 이웃이 내왕하고 정보와 예물의 전달 등과 같은 사회적 기능을 가능케 하는 회로(回路, Circuit)이다(이남식 1985:21).

〈표 1〉 조사지의 마을가기 범위



〈표 1〉 조사지의 마을가기 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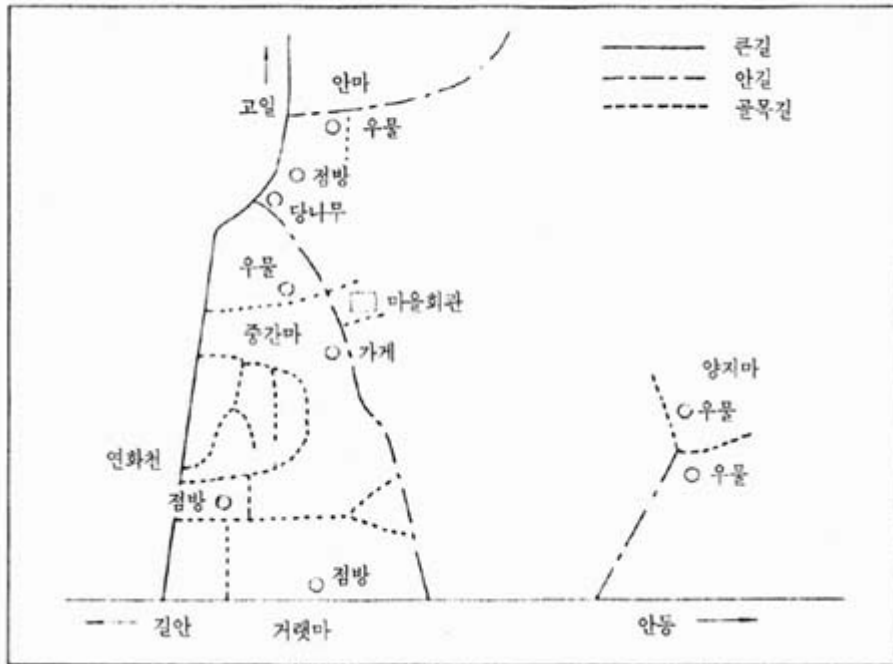
조사지의 길 구성은 큰길, 안길, 골목길로 되어 있다. 마을을 통과하는 큰길로는 길안-안동간의 국도와 이웃마을로 통하는 버스길이 있다. 그리고 큰길에 분리되어 각 집락으로 들어가는 안길이 있다. 이 안길은 마을사람들이 사용하는 공공성이 가장 큰길로 여기에는 마을회관, 가게, 당나무 등 공공 공간이 설정되어 있다. 각 집락 내에는 또 골목길이 있다. 이 골목길은 가장 작은 단위의 이웃을 연결하는 길이다. 집락내 마을가기는 이 골목길을 통해, 집락간 마을가기는 안길과 큰길을 통해 이루어진다. 안길, 골목길 등은 지리적(地理的)으로 뿐만 아니라 심리적(心理的)으로도 마을을 구획하고 그 길을 따라 마을 다닌다.

조사지에는 마을가는 장소는 계절에 따라, 여름에는 당나무, 마을회관, 개천가, 가게

11) 박성준은 [농촌건축의 공간구조 및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서울대, 석사학위논문 36-43)에서 길이 종류를 마을 외부의 큰길(바깥길), 마을의 도입부분에 해당하는 어귀길, 마을내부의 안길, 각 집을 연결하는 골목길, 이웃마을이나 산으로 통하는 셋길로 나누고 있다.

등 실외가 많고, 겨울에는 마을회관, 동네사랑방, 가게 등 실내 공간이다.(〈표 2〉 참조)

〈표 2〉 마을 길 구성과 공공장소



〈표 2〉 마을 길 구성과 공공장소

당나무는 동제를 거행하는 신앙의례 공간이다. 마을 중간에 위치하고 있고 그들이 두터워서 이곳은 밤낮으로 어린아이에서 노인들까지 모이는 곳이다. 마을회관은 최근에 마을성원의 협동으로 건립되었는데, 마을회관이 건립된 후에 이곳에서 마을회의를 개최하고 일년 내내 마을 노인들이 마을가는 장소가 되었다. 또 마을 중간에 자리를 잡고 있어 일종 문화중심지(文化中心地, culture center)로서 역할을 한다.

마을내의 가게도 중요한 장소이다. 조사지 내에는 가게가 3개 있는데, 각 가게에는 연령별로 이용자가 나누어져 있다. 연화천은 마을사람들의 목욕터이며 빨래터이다. 여름철 저녁식사 후에 끼리끼리 마을 나와 하루의 피로를 풀며 일상생활이나 농사 등 생활이야기를 나눈다.

그 외의 장소로는 동장대 또는 큰방이 있는 집에 잘 모이며, 특히 동네 사랑방에 잘 모인다.

마. 생활주기(生活週期)와 마을가기

마을의 생활주기에 따라 마을가기를 하루일과, 장날, 명절, 생업력과 체의력으로 나누어 그 실태가 달라진다. 마을가기의 시기(時期)와 빈도(頻度)는 마을의 생활주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하루의 일과는 오전, 오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농촌의 하루는 바깥노인의 ‘에헴’하는 기침소리로부터 시작해서 마을갔다와서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 짓는다. 마을가기는 하루 일과 가운데 짬(여가)만 나면 밤낮 구분 없이 이루어진다. 이전에는 낮에 온종일 일을 하고 저녁이면 보통 가깝고 친한 사람들끼리 습관적으로 마을가서 모였다. 그런데 요사이는 논, 밭에 오가면서 점심, 저녁 때 가게에 잠깐 모였다 간다. 농업기계화, 제초제, 오토바이, 자전거의 보급으로 낮에도 여가가 생겨서 거리의 원근에 상관이 없어졌다. 특히 텔레비전의 보급으로 밤마실은 거의 없어졌다. 노인들은 마을을 다니는데 밤낮이 없다. 어린이, 처녀, 젊은 며느리들이 밤마실 다니면 흥잡힌다. 아낙네들은 아침저녁으로 식사준비를 위하여 동네 우물로 물 길러 가는 것도 일종의 마을가기가 된다. 동네 우물 가는 여자들의 사회적 공간이다. 여기에 모인 여자들은 마을 소문을 서로 교환했다. 지금은 집집마다 상수도가 보급되어 공동우물도 없어졌다.

5일을 주기로 형성되는 정기시장은 마을생활에서 한 단락을 짓는 날이다. 조사지에서 출입하는 장은 안동장과 길안장이다. 매번 두 장을 다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장날 저녁이 되면 장에 갔다오지 않는 사람은 갔다온 사람 집으로 마을간다. 양쪽 장에 관한 소식, 물가시세 등등의 정보가 장날 저녁 마을가서 전해주고 전해 듣는다. 농촌사회에 외부의 소식이나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는 텔레비전이 생겨났지만 텔레비전으로 들을 수 없는 소식, 즉 마을 내의 경조사, 출생, 생일, 제삿날, 농사정보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소식은 바로 마을가기를 통해 마을내 성원들에게 전파된다.

새터의 명절은 설 보름 단오 추석을 치고 있지만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설, 추석 명절을 크게 쓴다. 특히 정월달은 1년 가운데 가장 인간관계가 빈번하게 마을가기도 가장 활발하다.

다음해 농사를 준비하는 농한기때 예전에는 초당방으로 마을가서 명석, 가마니, 삼태기를 짜기도 하고 화투도 쳤다. 요즘은 노인들은 경로당, 그 밑에 나이에 있는 사람은 가게에서 하루종일 화투를 치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정치이야기까지 다양하게 나눈다.

마을가기는 1년 내내 관행 되지만 시간적으로 낮보다 밤에, 무짓날보다는 장날에, 계절적으로 겨울철에 명절에 많이 이루어진다.

4. 마을가기의 기능(機能)

앞 절에서 혈연관계, 연령, 성, 거주위치, 생활주기 등에 따른 마을가기 관행의 실태(實態)와 특징(特徵)을 살펴봄으로써 그 대체적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마을의 일상생활에서 마을가기의 기능을 ① 자치기능(自治機能), ② 정보교환기능(情報交換機能), ③ 공동휴식기능(共同休息機能), ④ 공동생산기능(共同生産機能), ⑤ 사회교육기능(社會教育機能), ⑥ 사회결속기능(社會結束機能) 등으로 나누어 고찰함으로써 마을가기의 성격(性格)과 본질(本質)을 규명해 보기로 한다.

가. 자치기능(自治機能)

마을의 대표적인 자치(自治)기구로는 동계(洞祭)를 전후한 동회(洞會)가 있다. 전통사회에서 동회는 정치적 이슈가 토론되고 결정이 되는 기구가 아니라 형식적인 토론과 절차를 밟아서 이미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는 모임의 성격을 가졌다고 하겠다. 실질적인

토의와 결정이 이미 비공식적인 모임, 특히 마을가기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마을의 중요한 행사나 결정사항이 있으면 우선 마을 다니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된다. 며칠동안 마을 다니면서 다른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살피고, 만약에 이견(異見)이 있을 때는 꾸준한 의사교환(意思交換)과 설득(說得)을 통해서 마을 성원들 간에 다른 이의(異議)가 없는 마을의 총의(總意)가 이루어진다.

마을가서 나누는 이야기는 시사적인 문제에 대한 비판, 마을 운영에 대한 토론, 사소한 소문 등 다양하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정보(情報)와 의견(意見)의 교환을 통하여 서로의 생각을 비판, 수용하게 되고 점차적으로 견해의 일치를 이루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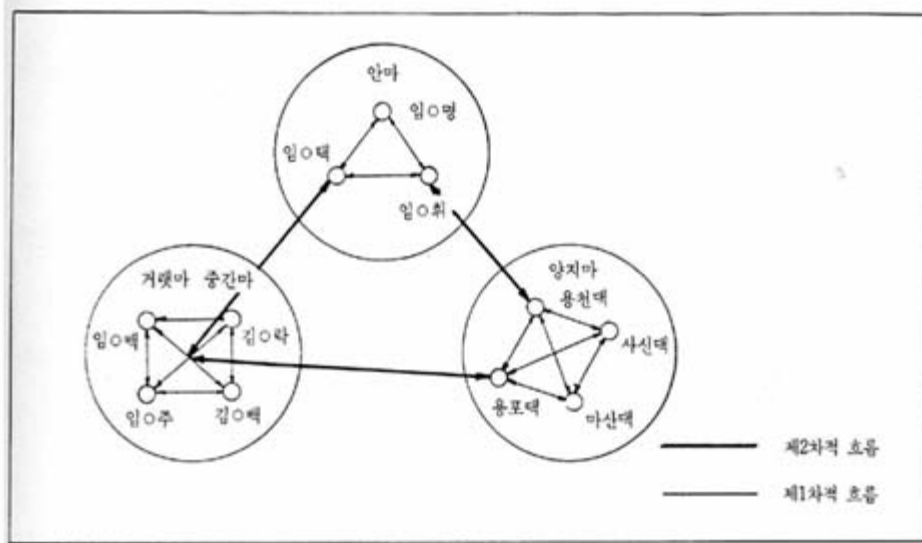
마을가기 모임에서 성원들은 고정적이 아니고 유동적이다. 여러 개 마을가기 모임에서 형성된 견해들은 또 다른 마을가기 모임을 통해 마을전체의 여론(輿論)으로 확산된다. 이렇게 해서 마을의 중대한 시안은 공식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마을가기를 통해서 그 문제에 대한 모든 마을사람들의 견해가 어느 정도 합의(合意)에 도달한다.

나. 정보교환기능(情報交換機能)

마을가기는 사회 문화적 교환의 통로 구실을 한다. 마을을 오고가는 마을가기는 특정 상황에 대한 마을 성원들의 의견이나 여론, 정보 등이 전달되는 길이다. 마을가기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신문 등으로 듣고 볼 수 없는 마을내의 소식을 전해 듣는 길이다.

아이들은 골목의 놀이터에서 또래끼리 필요한 소식을 얻어듣고, 노인들은 당나무밑이나 사랑방, 마을회관으로 마을 가서 소식을 나누고, 아낙네들은 우물가와 빨래터, 마을가서 삼삼오오하면서, 남정네들은 사랑방으로 마을가서 마을 내나 이웃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두루 교환한다. 이러한 정보들은 함께 먹는 식구들의 아침저녁 밥상에서 다시 이야기된다. 이렇게 해서 집집마다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은 마을 성원들에게 소상하게 알려진다.

〈표 3〉 마을가기의 정보의 흐름



〈표 3〉 마을가기의 정보의 흐름

다. 공동휴식기능(共同休息機能)

농촌에서는 평상시 오락이 별로 없다. 마을사람들은 마을 가서 사랑방이나 마을회관, 당나무 밑 또는 시원한 곳에 앉아서 담론(談論)을 나누고 가끔 장구나 화투를 치는 것이 오락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여름철에 저녁을 먹고 나면 의례 마을 사람들은 당나무 밑이나 개천가, 뚝에 끼리끼리 밤마을을 나와 목욕을 하거나 환담을 나눈다. 마을가기는 농민으로 하여금 고된 노동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활력소가 되는 하루의 피로를 회복하는 것이다. 마을가는 곳은 여름철 농민의 휴식과 피서의 장소이다. 겨울철의 동네사랑방으로 밤마을 가서 듣는 입심 좋은 할아버지의 고담(古談)도 빠뜨릴 수 없는 재미다.

라. 공동생산기능(共同生産機能)

마을 사람들 상호간에 품앗이, 한정된 농기계로 마을전체의 작업을 하기 위한 작업일 정조정, 공동작업의 계획수립, 공동시설의 관리 등 마을일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마을성원들간에 빈번한 모임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임은 바쁜 농사철에는 공식적인 회합을 갖기 힘들기 때문에 주로 밤으로 마을 다니면서 논의된다.

농한기에는 마을가서 들계삼심고 밤날개 엮고, 새끼꼬는 등 공동작업장의 기능도 했다. 퇴비마련을 위한 마을 오는 사람을 위한 사랑방을 개방하는 경우도 있다.

마. 사회교육기능(社會教育機能)

연령집단의 성격이 강한 마을가기 모임은 정규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마을전승이나 지식(children lore, community lore)을 배우는 장이 된다.

관혼상제의 의례절차, 농사법, 농작물관리요령, 전통수공예의 교습 등을 배우는 곳이 되기도 한다. 마을가기 모임의 사회 교육적 기능으로는 사회화(社會化, Socialization)의 장소, 관혼상제의 의례절차를 상호(相敎)하고 지도하는 장소, 농사기술에 대한 새로운 지식과 정보기술을 배우는 곳, 또래끼리 모여서 성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성교육의 역할을 한다.

바. 사회결속기능(社會結束機能)

마을가기를 통해 전인적(全人的)인 접촉(接觸)을 함으로써 마을성원들은 갈등과 불화를 해소시켜서 성원간에 조화를 이룬다. 즉, 마을가기는 마을내의 갈등을 최소화하며 마을생활의 정상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마을사회의 유지존속(維持存續)의 기능을 하며 성원들 상호간의 친밀감과 일체감을 증진시켜서 마을사람들의 응집력을 공고히 하여 그들의 강한 연대의식(連帶意識)을 고취시켰다.

일상적인 마을가기는 '만남'과 '모임'을 통해 서로의 인간성, 재산, 가족, 친족관계, 심지어 각 집의 제삿날과 생일까지도 기억하는 대면적(對面的, face-to-face) 인간관계(人間關係)를 형성하게 한다. 마을가기는 마을성원들이 한마음, 한 동네에 산다고 느끼게 하는 지연적 결속과 이웃과 이웃이 같은 일, 같은 뜻으로 어울리는 결연(結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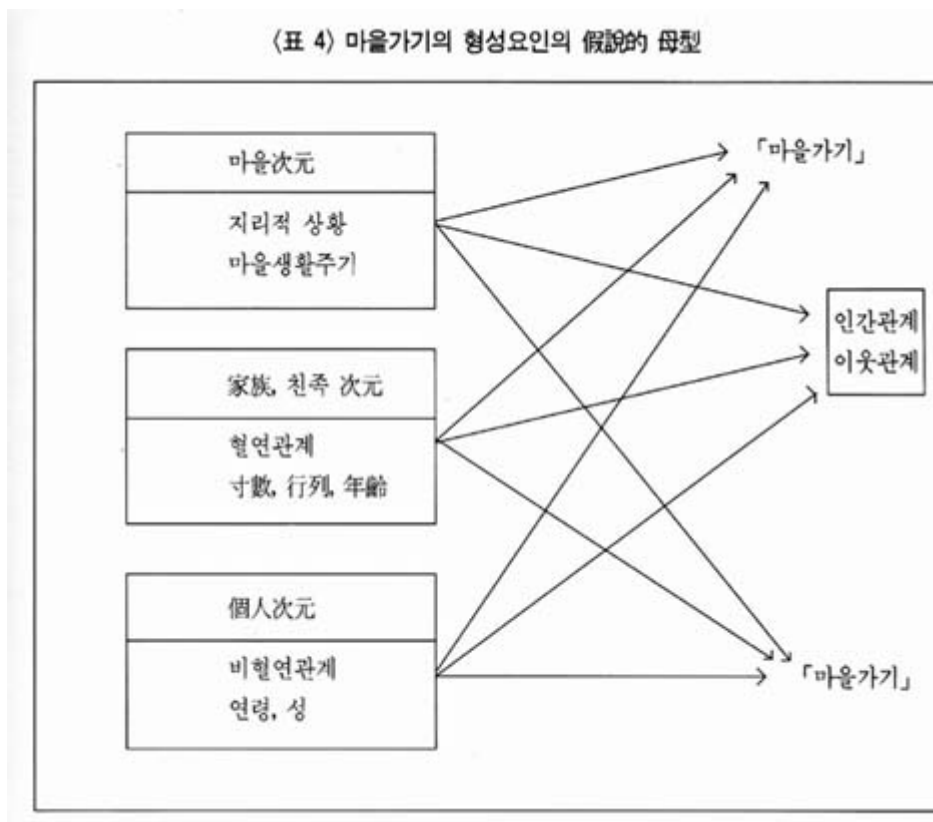
Solidarity)적 결속(結束)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5. 마을가기의 구조(構造)와 변화(變化)

마을가기의 주요한 형성요인으로는 혈연관계, 연령, 성, 주거위차, 생활주기 등이며, 이에 따라서 다양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현재 마을가기 모임은 연령성, 지리적 근린성, 혈연성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가설적 모형을 설정해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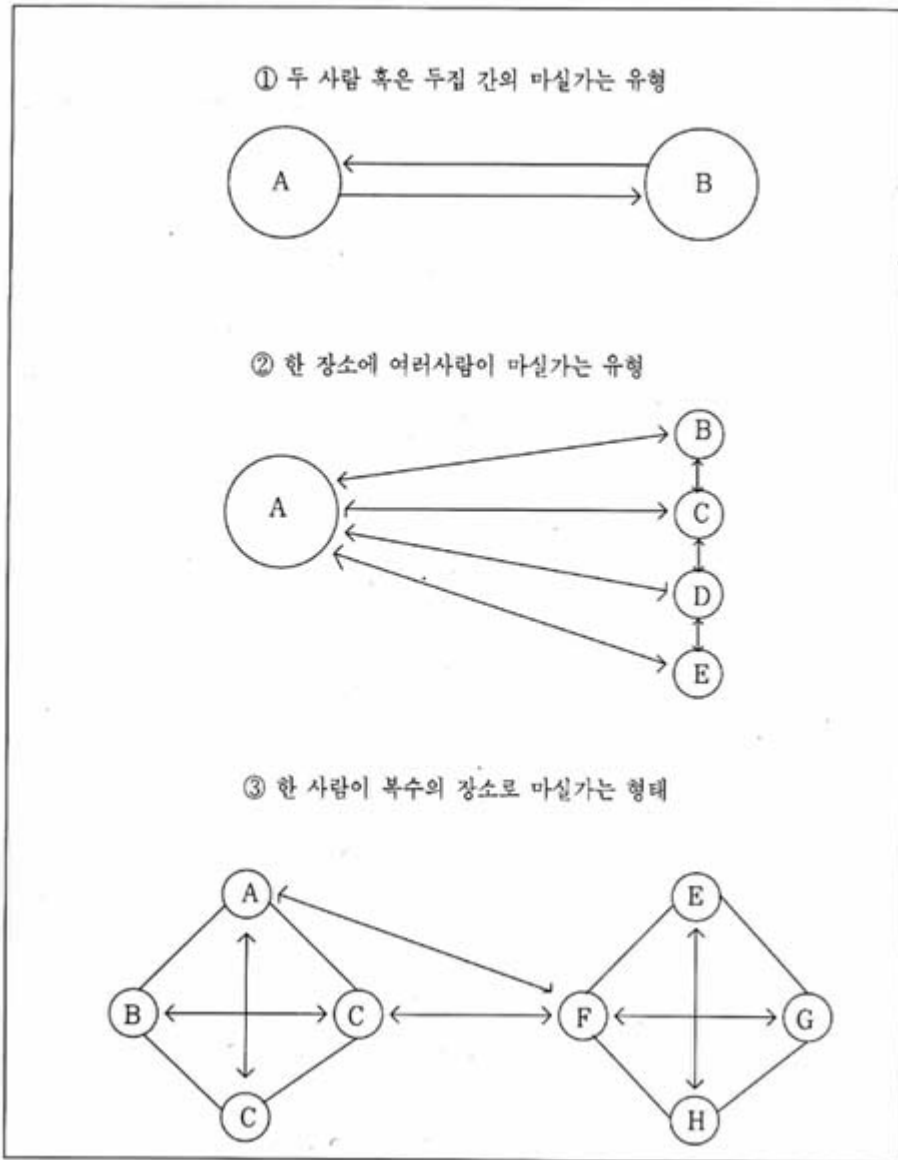
여러 가지 양상을 띠고 관행되는 마을가기의 사례유형은 다음의 몇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 첫째, 친한 친척이나 지리적으로 인접한 사람이나 집집간의 소규모로 관행되는 유형
 - 둘째, 동네사랑방이나, 마을회관 등 공공의 장소에 여러 사람이 마을가는 유형
 - 셋째, 한 사람이 여러 곳을 마을가는 유형
- 등을 볼 수 있다.



〈표 4〉 마을가기의 형성요인의 가설적(假說的) 모형(模型)

〈표 5〉 마을가기 관행의 몇가지 유형



〈표 5〉 마을가기 관행의 몇가지 유형

6. 결론(結言)

농촌(農村)의 마을생활에서 인간 대 인간, 집과 집의 일상적인 관계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관행(慣行) 가운데 「마을가기」라는 민속사상(民俗事象)을 안동군(安東郡) 임하면(臨河面) 고곡동(高谷洞) 새터의 사례(事例)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오늘날 한국사회(韓國社會)는 산업화(產業化) 도시화(都市化)의 급격한 변동추세와 함께 대중매체(大衆媒體)의 보급, 교육기능(教育機能)의 확대, 여가활동의 증대 등 생활양식에 현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농촌사회도 재배작물의 변화, 영농기계화, 노동력 동원방식 등 생산양식의 변화에 따라 생활양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마을 성원들 사이에 가치관(價値觀)의 차이가 심화되고 사회적 심리적 거리가 멀어져 간다.

전통(傳統)과 근대화(近代化)의 상충에서 오는 가치관의 대립을 막고, 성원들 간의 의식분열, 세대간의 의식구조 및 행동양식의 격차 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마을가기」의 다양한 측면이 문제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연구자(研究者)는 농촌사회의 인간관계 내지 근린관계를 파악하는 관행(慣行)으로서 마을가기 관행(慣行)을 설정하고 마을가기의 특징, 형성요인에 따른 유형(類型), 이와 관련된 민속관행(民俗慣行) 그리고 기능에 관한 구체적인 기술과 설명을 통하여 마을가기의 구조와 변화를 밝혔다.

하루에도 같은 마을내에는 복수로 마을가기 모임이 형성되는데 그 기본바탕이 되는 요인(要因)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① 혈연관계, ② 연령관계, ③ 성별관계, ④ 주거위치, ⑤ 생활주기

이런 요인(要因)에 따라 형성되는 「마을가기」는 몇 개의 유형(類型)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① 두 사람 두 집간에 오고가는 소규모 「마을가기」 유형

- ② 한 장소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유형

- ③ 복수의 장소에 한 사람이 마을가는 유형

마을생활에 「마을가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기능(自治機能) : 사회통제(社會統制), 공동부역,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의견교환과 여론형성, 강등의 조절과 해결.

둘째, 정보교환기능(情報交換機能) : 교환(交換)의 통로, Communication, 농사정보교환, 사회문화적 교환재의 통로.

셋째, 공동휴식기능(共同休息機能) : 공동오락, 피로회복, 구비전승의 구연(口演).

넷째, 공동산업기능(共同產業機能) : 농기계의 사용에 대한 작업일정조정, 수리관행, 밤날개여기, 들계삼삼기, 새끼꼬기 등 공동작업장.

다섯째, 사회교육기능(社會教育機能) : 사회화(社會化)의 장(場), 윤리도덕(倫理道德)과 예절(禮節)의 교육(教育), 훈육(訓育)하는 장(場), 성교육을 전승하는 비밀교습장, 생산기술의 학습·실습하는 장.

여섯째, 사회결속기능(社會結束機能) : 일체감, 귀속감 형성.

參 考 文 獻

- 姜大基·洪東植, 1982, 「대도시 주거환경과 근린형성에 관한 研究」 『韓國社會學』 第16輯, p123~140, 韓國社會學會.
- 姜信杓, 1979, 「朝鮮朝 傳統文化에 있어서의 리더쉽 : 어른(Father-man)」 『韓國文化人類學』 第10輯, 韓國文化人類學會.
- _____, 1908, 「日課」 『韓國民俗大觀』 2, 高麗大 民俗文化研究所.
- 高承濟, 1977, 「韓國村落社會史研究」, 서울 : 一志社.
- 權彝九, 1984, 「傳統的 生活樣式的 生態學的 側面」 『傳統的 生活樣式的 研究』 (하), 성남 : 精神文化研究院.
- _____, 外譯, 1988, 「누어인」, 서울 : 탐구당.
- 金光億, 1984, 「傳統生活樣式的 政治的 側面」 『傳統的 生活樣式的 研究』 (하), 성남 : 精神文化研究院.
- _____, 1987, 「村落社會의 變化와 政治構造의 性格」 『三佛金元龍教授停年退任紀念論集』 (人類·民俗學篇). 서울 : 一志社.
- 金三守, 1964, 「韓國社會經濟史研究」 『韓國文化史大系』 II,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 金一鐵, 1966, 「韓國農村社會의 社會的 協同과 그 變化」 『韓國社會學』 第2輯.
- _____, 1978, 「農村社會學」, 進明出版社.
- 金周姬, 1982, 「품앗이와 情」 『한국인과 한국문화』, 심설당
- 金宅圭, 1964, 「同族部落의 生活構造研究」, 대구 : 청구대학출판부.
- _____, 1969, 「韓國部落慣習史」 『韓國文化史大系』 IV,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 _____, 1979, 「氏族部落의 構造研究」, 서울 : 一潮閣.
- _____, 1980, 「마을생활」 『韓國民俗大觀』 I, 高大 民族文化研究所.
- _____, 外, 1982, 「韓國民俗研究論文選」 I, II, III, IV, 서울 : 一潮閣.
- _____, 1985, 「韓國農耕歲時의 研究」, 대구 : 嶺南大出版部.
- _____, 1986, 「韓國民俗學을 위한 提言」 『月山壬東權博士頌壽紀念論文集』
- 金漢超, 1988, 「部落祭構造의 共同體의 樣態」 『韓國의 文化와 社會』 第9輯, 성남 : 精文研
- 文炳集, 1973, 「韓國의 村落」, 서울 : 進明文化社.
- 朴光淳, 1981, 「韓國漁業經濟史研究」, 裕豐出版社.
- 朴秉濠, 1985, 「韓國의 傳統社會와 法」, 서울대출판부.
- 朴晟鏞, 1979, 「部落社會의 派閥과 人間關係」, 嶺南大 석사학위논문.
- 愼鏞廈, 1984, 「두레 共同體와 農樂의 社會史」 『韓國社會研究』 第2輯, 서울 : 한길사.
- _____, 1985, 「공동체 이론」, 서울 : 文學과 知性社.
- 梁泳均, 1988, 「마을의 社會經濟的 條件과 리더쉽 樣相의 關係에 관한 研究」, 서울대 석사학위논문.
- 呂重哲, 1974, 「同族部落의 諸機能」 『韓國文化人類學』 第6輯.
- _____, 外, 1983, 「韓國人의 初期社會化過程研究」, 精神文化研究院.
- _____, 外, 1985, 「韓國人의 學童期 社會化過程研究」, 精神文化研究院.
- 유명기, 1977, 「同族集團의 構造에 관한 研究」 『인류학논집』 第3輯, 서울대 인류학회.
- 李南植, 1979, 「韓國山村의 扶助交換에 관한 研究」, 대구 : 영남대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83, 「韓國農村社會에 있어서 女性勞動力의 交換慣行研究」 『女性問題研究』 第12輯, 효성여대 여성문제연구소.
- _____, 1985, 「聚落의 形成과 마을사회 共同體의 機能」 『韓國社會의 變動과 발전』, 汎文社.
- _____, 1986, 「村落社會의 傳統性과 새 환경에의 적응」 『安東文化』 第7輯, 안동 : 안동대 안동문화연구회
- _____, 1988, 「촌락경관과 주민의식」 『경북북부지역의 전통문화』,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 李杜鉉外, 1979, 『韓國民俗學概說』, 서울 : 보성문화사.
- 李萬甲, 1973, 『韓國農村社會의 構造와 變化』, 서울 : 서울대출판부.
- _____, 1981, 『韓國農村社會研究』, 서울 : 多樂園.
- _____, 1983, 『社會調查方法論』, 서울 : 韓國學習教材社.
- 李丙燾, 1966, 「두레와 그 語源에 對한 一考察」 『이병기 頌壽紀念論文集』.
- _____, 1976, 『韓國古代史研究』, 서울 : 博英社.
- _____, 1977, 「한국고대사회와 그 문화」, 서울 : 서울문고 71.
- 王仁權, 1983, a 「現代의 農村社會學」, 서울 : 博英社.
- _____, 1983, b 「韓國農村部落의 輿論指導者와 非指導者」 『韓國社會의 傳統과 變化』, 서울 : 汎文社.
- 林永培·千得琰, 1987, 「住岩댁, 水沒地域內 自然部落의 定住空間構成에 關한 研究」 『住岩댁水沒地域綜合學術調查研究報告書』, 광주 : 全南大博物館, 金南.
- 林在海, 1986, 『民俗文化論』, 서울 : 文學과 知性社.
- _____, 1989, 「안동지역의 이야기꾼과 이야기」 『安東文化研究』 第三輯, 안동 : 安東文化研究會.
- 張哲秀, 1987, 「木花傳來에 따른 民俗文化의 變化에 對한 試論」 『安東大』, 안동대학 총학생회.
- 金京秀, 1984, 「同族集團의 地位上向移動과 個人의 役割」 『傳統의 生活樣式의 研究』 (하), 성남 : 精神文化研究院.
- _____, 1985, 「新羅社會의 年令體系와 花郎制度」 『韓國文化人類學』 第17輯.
- 崔在錫, 1966, 「同族集團의 組織과 機能」 『民族文化研究』 第2호, 고대 민족문화연구원.
- _____, 1969, 「契集團研究의 成果와 課題」 『김재원박사회갑기념논총』.
- _____, 1975, 『韓國農村社會研究』, 서울 : 一志社.
- 崔在錫, 1987, 「自然部落의 성격과 그 변화」 『韓國文化人類學』 第19輯.
- 崔在律, 1966, 「芽亭이 農村社會經濟에 미친 影響」 『湖南文化研究』 第14輯, 全南大 湖南文化研究所.
- _____, 1986, 『農村社會學』, 서울 : 裕豐出版社.
- 崔 協, 1982, 「同族部落과 非同族部落의 社會構造的 特性」 『湖南文化研究』 第12輯, 全南大 湖南文化研究所.
- 韓相福外, 1982, 『文化人類學』, 서울 : 서울대출판부.
- _____, 1980, 「韓國人의 共同體意識에 關한 研究」 『韓國社會와 文化』 第3輯, 성남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_____, 1976, 「農村과 漁村의 생태적 비교」 『한국문화인류학』 第8輯, 한국문화인류학회.
- 洪慶姬, 1985, 『村落地理學』, 서울 : 法文社.
- 『韓國民俗綜合調查報告書』 (경북, 경남, 충청남, 충북, 제주도, 주생활편).
- 未成道男, 1985, 「年齡意識의 韓日比較」 『比較民俗學』 創刊號, 比較民俗學會.
- 伊藤亞人, 1982, 「契조직에 보이는 「親한 시이」의 분석」 『韓國의 社會와 宗教』, 亞細亞文化史.
- Alan Dundes, 1965, 『The Study of Folklore』, Prentice Hall Inc
- Bock, P.K., 1974, 『Modern Cultural Anthropology』 2nd ed., New York : Alfred A. Knopf.
- Brandt, V.S.R., 1971, 『Korean Village』, Harvard University Press.
- Dorson, Richard M., 1972, 『Folklore and Folklife』, Chicago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Evans-Prichard, E. E., 1940, 『The Nuer』, Oxford at the Clarendon Press.
- James A Clifton, 1968, 『Introduction to Cultural Anthropology』, University of Kansas, Lawrence.
- Geertz, C, 1977, 『Symbolic Anthropology』, New York : Columbia Univ. Press.
- Georges Balandier, 1970, 『Political Anthropology』 (Translated by A. M. Sheridan Smith),

Penguin books.

Giuseppe Cocchiara, 1981, 'The History of Folklore in Europe' (Translated from the Italian by John N. McDaniel), Publication of the Institute for the Study of Human Issues : Philadelphia.

Kaarle Krohn, 1971, 'Folklore Methodology' (Translated by Rogerl, Welsch), Published for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by the University of Texas Press, Austin&London.

Kenneth W.&Mary W. Clarke, 1963, 'Introducing Folklore' , Holt, Rinehart, and Winston, Inc.

Malinowski, Bronislaw, 1944, 'A Scientific Theory of Culture' , New York : Macmillian Co.

_____, 1961, 'Argonauts of the Western Pacific' , New York : E. P. Dutton & Co. Inc.

Marvin Harris, 1983, 'Cultural Anthropology' , New York : Harper & Row, Publishers.

Sahlins, Marshall, D., 1961, 'Evolution and Culture'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ropp, Vladimir, 1984, 'Theory and History of Folklore' , Minnesota : Nandnester University Press.

Rosemary Levy Zumwalt, 1988, 'American Folklore Scholarship' , Indiana University Press.